

부활 메시지 고전 15:1-11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들어와서 내게 언약이 되면 약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약속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겠다는 징표이다. 이 생명의 피가 언약인 것이다. 오직 여기에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 우리는 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 길이 오직 여기에 있다. 주님은 이 약속의 피 안에 세가지를 약속하셨다. 완전한 왕으로 사단을 죽이는 권세를 이 피 안에 약속해주셨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이 피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의 머리를 깨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했다는 것이 이 약속의 피이다. 그래서 천국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24시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이 약속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훈련도 하고 집회도 하는 것이다. 이번에 WRC 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여겨 본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그 복잡한 곳에 손잡고 가는 것을 보니 마음에 많이 남았다. 어릴때에는 시청각교육이 중요한데, 여기 참석한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머리에 남겠는가? 평생 언약이 될 것이다. 우리도 부모님들이 분발해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RCA가 있어서 귀한데, 거기도 한 1,500명은 온다. 이런 훈련에 가능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게 중요하다. 이것이 렘넌트 교육에 중요한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이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세가지를 누릴려고 하는 것이다. 원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완전한 답이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충분하고도 남는다. 언제 이것을 깨닫냐면 이것이 발견될 때이다.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발견되지만 그게 진짜 시작이다. 그 때부터 힘이 난다. 내 안에서 영적인 힘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약속한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믿고 언약으로 잡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 듣고 훈련 받고 메시지 따라가야 한다. 분명히 어느날이 있다. 그 날이 오면 진짜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로 말씀은 살았다,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 때가 하루라도 빨리 오고,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 과정이고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든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다. 이것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 믿으면 죽고 난 후에 부활된다. 다른데는 절대 부활이 없다. 이것을 믿는 거기에만 부활이 있다. 그리고 응답된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기도 안해도 응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생이 그 때부터는 이것을 잡고 기도하는 그대로 인생이 되어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체형해 나가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를 해도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발견되는 그 날부터 진짜 시작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업무이다. 그러면 거기서 재창조 일어나고 전도도 선교도 정복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작품된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1. 부활

오늘 고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부활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기 바란다. 그 중에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 이것은 복음이고,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믿었으면 너희는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그때에는 신약성경이 없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래서 내가 말한대로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도 자기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내 인생을 살리는 언약이다. 이것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이다. 확실히 될 만큼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날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한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고 진짜로 듣는 것이다. 아주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오면 눈이 열린다. 가장 근본적으로 눈 열릴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언약의 피는 내 인생을 저주에서 건진다.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 갖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신약성경을 다 써서, 4복음서가 다 있어서 정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다.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에는 구약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할 못했다. 만일 구약으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사도 바울을 인간중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것과 부활하신 것을 써 내려갔다. 거기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만삭되기 전에 태어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한다.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여 자격이 없는데 자기에게도 주셨다는 것이다.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도 내 안에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위해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나실 필요가 없다. 죽는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만일 내 안에 있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다. 그냥 계시는 것이 영원한 부활이다.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다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속았다는 것이다. 매주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경 안쓰지만 대부분 우리의 관심에는 이 땅에서의 응답에 관심이 가 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영생과 그곳의 상급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천국에서의 영생과 상급이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 빌립보서 4:14절에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다.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다. 목표가 꾀대인데, 그것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천국이 있다는 생각이 확실치 않아서 인생의 첫째 목표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천국이나 지옥이 뭔가 모르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확실히 생명을 걸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했다. 13절의 뒷부분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다. 일어났던 일, 어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왜냐면 어제로 되돌아가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이유와 목표였다. 우리는 주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제자들을 잘 키워서 세계 복음화 했는가

하는 메시지가 많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할 것은 이 일을 한 수 많은 제자를 세우고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한, 문화를 새로 만든 바울 자신은 그 목표가 천국이었다는 것이다. 많은 제자를 세우고 메시지를 하지만 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천국의 상급이 목표였다. 조금 다르다. 나는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천국이 정말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사단에게 당한다. 결국은 천국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당연히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혜이다. 그래서 부활을 통한 영생과 상급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란다.

2. 메시지

부활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지옥가는데 뭐하러 교회 나오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게 아니다. 부활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 가장 처음의 메시지가 뭐겠는가?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이다. 나는 사망의 머리를 깬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자는 다 부활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일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생이 없는 경우는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생명만 있는게 아니다. 능력과 권세가 함께 있다. 생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면 사망의 권세를 깨게 된다.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사단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가지게 된다. 살아난 사람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마음도 살아나고 생각도 인생도 다 살아난다. 당연히 경제도, 육신도 살아난다. 자녀도 현장도 살아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언약이 되어버린다. 언약이 되면 그 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 그 때부터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된다.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나타난다. 안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내 자신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나도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계속 잡고 고백하라는 것이다. 잘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답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너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계속 심었다. 감람산에서 모였던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 분이 부활도 했다. 놀라운 일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절대 사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명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가진 사명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깰때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깨는데, 사명으로도 깬다. 왜냐면 뱀의 머리가 깨질때까지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

러면 뱀의 머리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 문제, 머리를 깨는 것이다. 사명을 언약으로 잡고 안 놓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 이렇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사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으로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놓으면 되겠는가? 사단은 반드시 무너지고 문은 반드시 열린다. 이것을 절대 미션이라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 사명을 받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지 4개를 주셨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요약해서 237, 치유, 서밋으로 정리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세우라고 하였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다. 잡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병든자에게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대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다. 당연히 237, 5천 종족 운동 일어날 것이다. 언약으로 잡아한다. 그리고 들어와야 한다. 그것을 위해 100팀 100교회. 들어와서 내가 이 하나님의 소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 세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방향이다. 나는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려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질문이다. 질문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믿는 자가 해야 할 사명이 이 네 개다. 언약되어야 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 가야 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양치기였다. 그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는 기적의 연속이었고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나면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하고 있다. 이것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 없는 사람도 있다. 우리 교회 뿐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내가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모두 해야 할 인생 방향이고 내용이다. 내게 언약으로 들어오면 힘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이 계속 달라지고 응답 받게 된다. 큰 응답은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근본 응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서 나온다. 그 응답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이유이다. 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세우는 방향,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부다 우리 인생 누구든지 초점이 여기에 걸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는데 나는 생각이 달라서 다른데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메시지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에 담아야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일이다. 일단 시작하면 된다. 시작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영적 시작부터 먼저 하면 된다. 영적 서밋이 그것이다. 서밋까지 안가도 된다.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된다. 다시 한번 부활의 비밀을 누리고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